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0월 30일(수)

윤석열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

- 한-캐나다 안보·방산 협력 강화를 통한 호혜적 협력 기회 모색 -
-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 협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30, 수)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안보·방산 협력,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금) 오타와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안보 대화가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향후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갖기에 이른 것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트뤼도 총리는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 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끝>